

# 영화 <게이샤의 추억:Memoirs of a Geisha>에 표현된 日本風 研究

고 영 숙\* · 조 규 화\*\*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박사과정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Japanese Style Expressed in the Movie 'Memoirs of a Geisha'

Young-Sook Ko\* · Kyu-Hwa Cho\*\*

Doctorate Course Complete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2006. 9. 25 투고)

### ABSTRACT

This study aims at investigating Geisha costume hidden in the history until now and how the fashion of Geisha style is expressed in accordance with character through the movie 'Memoirs of a Geisha'. Major contents of the text consist of studies includ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Geisha costume in Chapter 2, the Japanese style expressed in the movi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work <Memoirs of a Geisha> in Chapter 3, The movie <Memoirs of a Geisha> brought in an opportunity to spread the mysterious culture and art of Japan to the world, making Japanese style an important interest in the world of fashion as well. In a way to study this, the investig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literature data, DVD and newspaper of <Memoirs of a Geisha>, fashion magazine, articles from the Internet, etc.

The Geisha trend has made the hot blast blown harder in such ways to affect not only fashion but also cosmetics, electronic appliance, interior, etc. In S/S 2006, it was not limited to the Japanese style but diffused to the Orientalism in China, India, Korea, etc.

It can be said that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to be a starting point in investigating the special characters of Japanese Geisha costume hidden up to now. In the studies following in the future, the formative beauty demonstrated per Japanese designer needs to be more studied. Furthermore, it seems noteworthy to analyze and compare Chosun Dynasty's Kisaeng with Japanese Geisha.

Key words: Geisha(게이샤, 芸者), Japanese style(일본풍)

## I. 서론

영화 <게이샤의 추억:Memoirs of a Geisha>은 아서 골든(Arthur Golden)의 동명 소설인 <Memoirs of a Geisha(1997)>를 영화화하여, 제78회 아카데미상에서 의상상, 미술상, 촬영상을 받은 작품이다. 이 영화는 2005년 겨울부터 2006년 S/S에 걸쳐 패션 분야에 '게이샤(芸者)' 풍의 트렌드를 불러 일으킨 작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풍은 19세기 후반에도 자포니즘(japonisme)의 영향으로 서양에서 기모노(着物) 풍의 드레스와 텍스타일 등이 유행하였는데, 21세기에 들어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과 퓨전(fusion)의 트렌드 속에서 일본풍이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오늘날 게이샤는 일본문화를 상징하는 아이콘(icon) 중 하나가 되었으며, 전통적인 技藝를 가진 장인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게이샤복식에 나타난 전통적인 양식미를 연구하고,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표현된 일본풍을 살펴보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왜색 논란에 말미암아 일본 게이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였는데, 본고를 필두로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과 게이샤 연구의 시발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연구내용은 제2장에서 게이샤의 등장배경과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게이샤의 복식의 특성과 美意識을 연구하며, 제4장에서는 영화에 표현된 일본풍을 첫째, 인물별로 묘사된 색채의 상징성 둘째,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및 이미지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나타난 미의식과 전통 게이샤의 미의식과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문헌자료, <게이샤의 추억>의 DVD와 신문, 패션잡지, 인터넷 등의 기사를 통해 연구하였다.

## II. 게이샤의 등장배경 및 현황

### 1. 게이샤(芸者: geisha)의 등장과 역할

게이샤란 주로 연회석에서 絃歌, 무용 등으로 酒

興을 돋우는 것을 業으로 삼는 여성<sup>1)</sup>으로, 일본의 妓女를 말한다. 게이샤의 호칭도 지방에 따라 달리 불렸는데, 도쿄(東京) 등 關東地方에서는 게이샤(芸者), 견습 게이샤를 한교쿠(半玉) 또는 오샤쿠(雛妓)라고 부른다. 교토(京都)·오사카(大阪) 등 關西地方과 야마가타(山形), 니이가타(新潟), 이시카와(石川) 등에서는 게이코(芸妓, 芸子), 견습게이샤를 마이코(舞妓, 舞子)라고 부른다. 원래 에도시대부터 게이샤(芸者), 게이코(芸妓)라고 불렸지만, 메이지시대(明治時代, 1867-1912) 이후 게이코(芸妓)를 게이(芸妓)라고도 부른다. 연회에서는 주로 춤을 추는 다치가타(立方)로 공연하며, 기온 冢本(祇園甲部)에 한해서 교부이노우에류(京舞井上流)<sup>2)</sup>, 그 외에서는 와카야기류(若柳流)<sup>3)</sup> 등의 무용을 공연한다. 또한 출신지에 관계없이 독특한 교토말씨를 사용하도록 교육받는다.

게이샤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에도시대(江戸時代, 1603-1876) 중국 明나라에서 사미센이 전래되면서, 사미센에 어울리는 노래인 우타(唄)가 생겨났다. 이에 따라 사미센의 음율에 맞추어 여가부키(女歌舞伎)의 춤이 유행하였는데, 이를 生業으로 하는 게이샤가 등장하게 되었다<그림 1>. 더욱이 이 시대에는 큰 사찰이나 항구 근처에 찻집(お茶屋)이 성행하였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하나마치(花街)가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곳이 게이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sup>4)</sup>. 게이샤는 처음에는 거의가 남성이었다. 이들은 전통적인 일본의 예술, 음악, 무용과 화법을 익힌 프로 예술인이었다. 그러나 남성 게이샤는 서서히 그 수가 줄어들어 1800년경에 이르자 여성 게이샤의 수가 남성 게이샤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으며, 그 후 숙련된 여성 예술인만이 게이샤가 되었다.

원래 게이샤는 遊女와 구별되어 전적으로 藝를 파는 것을 공지로 여겼으며, 에도시대 말기에는 色을 파는 자는 엄벌에 처해졌다. 그러나 메이지시대 이후는 점차 그 氣風이 쇠퇴하면서 藝를 파는 것뿐만 아니라 色을 파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sup>5)</sup>. 그 후 풍기를 문란 시킨다고 하여 여러 차례 금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으나, 메이지시대(明治時代)

이후 그 수가 크게 늘어났다. 오늘날 게이샤는 일본의 인간문화재적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



〈그림 1〉 靑樓芸者選<sup>6)</sup>, 鳥文齋榮之, 東京國立博物館, 에도시대.

## 2. 게이샤 문화와 현황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게이샤의 세계를 ‘가류카이(花柳界)’, 즉 ‘화류계’라고 불렀으며, 게이샤는 상류사회에 예술을 전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인정받았다. 가류카이란 ‘꽃과 버드나무의 세계’라는 뜻으로, 심미적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장소다. 즉 ‘게이샤 나름의 아름다움을 표출한다는 점에서는 꽃을 닮았고, 공손하고 나긋나긋하면서도 강하다는 점에서는 버드나무와 비슷하다’<sup>7)</sup>라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가류카이’는 전문 교육을 받은 게이샤들이 함께 살면서 일하는 화류계의 공동체다.

마이코와 게이샤는 보통 게이샤 저택이라는 뜻의 오키야(置屋)에서 거주하며 교육을 받았다. 게이샤가 되기 위해서는 뇨코바(女紅場)<sup>8)</sup>에 입학한 후 수년간 일본의 전통춤, 전통음악, 서예, 다도, 꽃꽂이 등의 정식교육 과정을 밟아야만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보통 만 5세 때부터 이곳에서 일본 전통무용 등의 전문교육을 받기 시작한 여자아이들은 초등학교 4학년을 마치면 견습게이샤인 마이코(舞妓, 舞子)가 될 수 있었지만, 1947년 아동복지법이 설립된 후 15세 이전에는 마이코가 될 수 없게 되었다. 뇨코바의 선생님은 일본 최정상급의 예술가로 구성되었으며, 강사진의 상당수가 인간문화

재나 중요문화재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일본의 게이샤는 예술의 전통을 이어간 전문예술인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이들은 예능 수업과 자기 개발을 통해 일본 고유의 전통 고수 및 전승에 기여했으며, 일본 여성의 패션과 문화를 리드하는 선구자 역할을 했다. 게이샤는 기예와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기생과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기생도 예전에는 글과 춤에 능숙하지 않으면 안됐다. 특히 官技의 경우 기생학교 같은 엄격한 교육기관이 있었고, 비록 상류사회 남성에게 웃음을 팔았지만 절도와 기개가 있었다.

게이샤 사회의 흥망은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성쇠, 특히 경제적 분위기에 크게 좌우됐다<sup>9)</sup>. 1930년대 일본이 동북아시아 각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던 시대에는 게이샤들도 덩달아 전성기를 누렸고, 1940년대 초반, 일본이 전쟁에서 수세로 몰렸을 때는 게이샤들도 전쟁 물자를 조달하는 공장에서 일해야 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아동복지법의 제정과 오락, 접객의 다양화로 게이샤의 수도 줄어들었다. 그 후 1970년대, 일본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자, 게이샤는 다시 그 숫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중흥기를 맞았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일본 경제가 크게 위축되고 장기간 경기가 침체되자 일본의 게이샤들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400년 넘게 변함이 없었던 자신들의 모습에 내적, 외적인 변화를 주고 있다.

오늘날 전통 게이샤는 인간문화재처럼 드문 존재이며, 국가에서는 일본 전통을 고수하는 입장에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수련과정이 힘들어 선호하는 이들이 별로 없다. 지금은 게이샤 학교에서 50살이 넘는 게이샤들이 전통춤, 화장법, 다도와 같은 예절은 물론, 회화, 영어도 가르치고 있다. 현재 교토의 게이샤, 마이코의 활동 장소로는 기온코부(祇園甲部), 미야가와초(宮川町), 기온히가시(祇園東), 본토초(先斗町), 가미시치켄(上七軒) 등 5곳이다. 이 중에서 교토의 기온 코부(祇園甲部)는 일본에서 가장 유서 깊고 유명한 카류카이로 알려져 있다<sup>10)</sup>. 게이샤는 아직도 그 특유의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지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의 직업 역시 변화를 맞고 있

다. 그러나 일본인들이 문화적 가치를 인정하는 한 게이샤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 Ⅲ. 게이샤 복식의 특성과 美意識

#### 1. 게이샤 복식의 특성

##### 1) 기모노(着物: kimono)

게이샤의 기모노는 예술로서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기모노는 노래나 무용 혹은 게이샤가 가지고 있는 藝의 특별한 종류일 뿐 아니라 미적으로 그녀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이기도 하다<sup>11)</sup>. 게이샤의 기모노 착용방법은 견습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이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나라이(見習い: minarai)

미나라이란 정식으로 마이코로 데뷔하기 전 1개월간 선배 게이샤의 지도하에 연회석인 오차야(茶屋)에서 견습을 받는 마이코 견습생을 말한다. 이 기간에 입는 기모노는 일반 마이코의 기모노와 비슷하지만, 한층 더 호화롭고 화려한 패턴의 기모노를 입는다. 또한 오비길이는 마이코의 것보다 절반 정도로 짧은 한다라(半だら)오비를 매며, 후리소데(振り袖)의 길이도 다소 짧다(그림2, 左).



<그림 2> 左:미나라이의 한다라 오비<sup>12)</sup>, 右:마이코의 오비<sup>13)</sup>

##### (2) 마이코(舞妓, 舞子: maiko)

마이코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3년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친다. 수련이 끝나고 오키야(置屋)의 여주인과 오차야 조합(茶屋組合)에서의 승인이 나면, 공식적으로 게이샤가 된다.

마이코는 어려서부터 견습기간을 갖기 때문에 기모노는 커서도 입을 수 있도록 소매 길이를 일부러 길게 하여 어깨 부분에서 알맞게 단을 접어서 정근<sup>14)</sup> 후리소데(振袖)의 히키즈리(引摺り)기모노(着物)를 입는다<sup>15)</sup>. 이것은 보통의 기모노와는 달리 소매가 길고 옷자락이 넓으며, 뒷깃이 깊게 파여 있어서 목 뒷부분이 많이 드러난다. 기모노의 뒷자락은 바닥을 끌릴 정도로 많이 길며, 옷자락의 가두리는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늘어져 내린다. 그리고 기모노의 문양도 마이코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린 마이코일 수록 무늬도 화려하고, 어깨 위까지 문양이 들어가 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무늬는 줄어들면서 심플한 것으로 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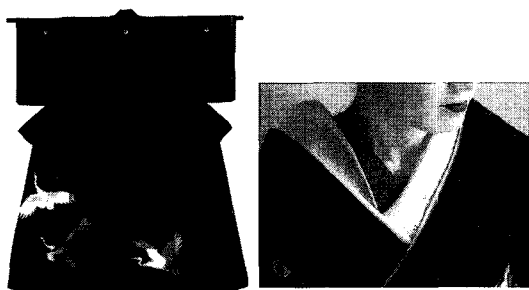
마이코의 견습기간이 끝나면 정식 게이샤가 된다. 이때 빨간 색의 깃 대신 흰색 깃으로 바뀌어서 하는데, 이를 '에리카에(襟薙え)'라고 한다. 그리고 6미터가 넘는 긴 오비를 허리에 둘러맨다. 오비는 가슴 위로 높이 매며, 오비 양끝이 땅에 닿을 정도로 길게 묶는다(그림 2, 右). 도쿄에서는 마이코를 한교쿠(半玉)라 부르는데, 복식에는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한교쿠의 경우 버선을 신지 않은 맨발이며, 모모와레(桃割れ)라는 헤어스타일을 한다. 모모와레는 에도후기(江戸後期)부터 쇼와(昭和)시대에 걸쳐서 町人 계층 중 10대 전 후반의 소녀들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으며, 마이코의 오후쿠 스타일과 비슷하다(그림 7).

##### (3) 게이샤(芸者: geisha)

평상시에 입는 게이샤의 기모노는 일반인들이 입는 전통 기모노와 다름이 없다. 다만 정식 예복차림의 경우 뒷목이 깊게 파이고 뒷자락이 끌리는 히키즈리 기모노를 착용할 뿐이다. 일반적으로 오비는 다이코 무스비(太鼓結び)의 형태로 하여 낮게 묶는다. 게이샤의 공식예복인 구로몬츠기는 始業式(1월7일), 八朔(8월1일)<sup>16)</sup>, 미세다시(店出し)<sup>17)</sup>, 에리카에(襟薙え) 등의 행사시에 입는데, 이때 교토(京都)

의 게이샤의 경우는 흰 깃인 항에리를 앞쪽에서 살짝 접어서 빨간색의 안감이 보이게 입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3). 게이샤의 흰 깃에도 흰색, 은색의 섬세한 자수로 가득 채워져 있다.

게이샤들은 1년 내내 기모노를 입는다. 그래서 계절에 따라 소재와 문양을 달리하여 계절감을 나타내는 기모노착장을 한다. 1월에 입는 구로몬츠키(黒紋付き), 2월과 3월에는 두 겹으로 된 기모노를 입는다. 4월에는 안감으로 마를 사용한 한 겹의 겹옷을 입고, 5월에는 패딩을 하지 않은 한 겹의 겹옷을 입는다. 6월에는 안감이 없는 홑겹의 히토에(一重)를, 7월에는 가벼운 실크 크레이프를 입는다. 8월에는 실크 레노(leno) 기모노, 9월에는 안감이 있는 두겹의 아와세(あわせ) 기모노를 입는다. 기모노의 문양을 보면 자연의 주제들은 항상 계절을 상징하는데, 소나무는 1월, 붓꽃은 5월, 벚꽃은 봄, 작은 송어는 여름을 상징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다<sup>18)</sup>.



〈그림 3〉 게이샤의 구로몬츠키 기모노(左)<sup>19)</sup>와 항에리(右)

## 2) 속옷과 깃(항에리, 半襟)

게이샤의 속옷 중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하다쥬반(肌襦袢)과 나가쥬반(長襦袢)이 있다. 하다쥬반은 기모노의 선을 따라 이어지는 헐거운 블라우스 같은 옷이다. 하다쥬반에는 빨간 색의 깃이 달려있다. 이 빨간 깃은 겉으로 살짝만 보이게 입는다. 이 위에 나가쥬반이라는 기다란 속옷을 걸친다. 나가쥬반에는 마이코의 경우 빨간색의 깃, 게이샤의 경우는 흰색의 깃인 항에리(半襟)를 단다. 실크로 만드는 이 항에리에는 흰색, 은색, 금색 등으로 촘촘한 수를 놓는다. 어린 마이코일수록 성기게 수놓아, 실

크의 바탕색인 빨간 색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인다. 이 붉은 깃은 원래 유년기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으나,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일본적 에로티시즘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다. 마이코의 경력이 쌓일수록 빨간 색은 보기가 힘들어질 정도로 수를 놓은 장식이 점점 두툼해지면서 흰색에 가깝게 변해간다. 그리고 정식 게이샤가 되면 흰색, 은색의 자수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항에리를 다는데, 이는 마이코 시절의 혹독한 훈련과정을 이겨내고 技藝를 겸비한 게이샤가 되었음을 상징한다.



〈그림 4〉 (左)마이코의 나가쥬반, (右)게이샤의 나가쥬반<sup>20)</sup>

## 3) 화장

게이샤들은 얼굴과 목에 특유의 하얀 화장을 하는데, 원래 이 화장은 천황을 알현하는 남자귀족들이 하던 것이다<sup>21)</sup>. 봉건시대 신성한 존재로 간주된 천황은 알현실의 얇은 막 뒤에서 신하들을 맞았다. 하얀 화장은 무슨 빛이건 반사해 냈기 때문에, 천황은 촛불 아래서 신하들의 얼굴을 쉽게 구별해 낼 수 있었다. 나중에 춤꾼들과 배우들이 이 관행을 이어받았는데, 하얀 화장을 하면 무대 위에서도 쉽게 눈에 띄일 뿐만 아니라 밝은 피부를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관에 부응할 수 있었다.

화장은 먼저 목의 앞과 뒤, 등 상부, 그리고 얼굴 순으로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일종의 포마드(pomade) 기름을 바른다. 그 위에 흰색 화장을 하는데, 목의 길이와 연약함을 강조하기 위해 목 뒷부분을 V자로 두 줄 또는 세 줄은 분을 칠하지 않고 맨살로 남겨둔다. 평상복을 입을 때는 두 줄을 남기고, 정식에복의 기모노를 입을 때는 세 줄을 남겨둔다. 이러한 목덜미의 분장은 V자로 남겨놓은 맨살피부를 살

짜 보여주기 때문에 도발적이며 관능적인 미를 자아낸다. 마이코와 게이샤의 색조화장에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미나라이

앞머리의 헤어라인(hairline) 부분만을 남기고 얼굴 전체를 흰색으로 바른 후, 볼과 눈 주위를 벚꽃빛갈의 핑크로 펴 바른다. 그리고 나서 눈의 아웃라인(outline)을 따라 진홍색과 검은색으로 진하게 그린다. 윗눈썹은 red 또는 pink를 먼저 바른 후 검은색으로 윤곽을 확실히 그린다. 입술화장은 아랫입술만 진홍색으로 조그맣게 바른다.

### (2) 마이코

앞머리의 헤어라인(hairline) 부분만을 남기고 얼굴 전체를 흰색으로 바른 후, 볼과 눈 주변을 벚꽃빛갈의 핑크로 미나라이 보다는 아주 얇게 펴 바른다. 그리고 진홍색과 검은색으로 속눈썹의 아웃라인을 그린다. 윗눈썹은 red 또는 pink를 먼저 바른 후 검은색으로 윤곽을 확실히 그린다. 입술은 위아래의 입술을 진홍색으로 조그맣게 바른다.

### (3) 게이샤

에리카에의 견습기간에는 흰색으로 바른 얼굴에 진홍색과 검은색으로 눈 주위의 아웃라인을 얇게 바른다. 그리고 눈썹은 red 또는 pink로 희미하게 그리며, 게이샤가 되면 일반적으로 색조화장은 차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화장을 한다. 입술도 전체를 다 바른다.



<그림 5> 미나라이<sup>22)</sup>(左)와 게이샤(右)의 화장<sup>23)</sup>

## 4) 헤어스타일

### (1) 마이코의 헤어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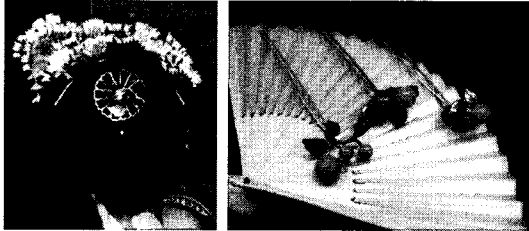
헤어스타일 또한 견습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마이코 초기에는 와레스노부(割れ信夫)라는 헤어스타일을 하며<그림 6>, 2-3년 후에는 오후쿠(おふく)로 바꾼다<그림 7>. 게이샤가 되기 위한 절차인 에리카에(襟替え) 1~4 주 전에는 삿코(先笄)<sup>24)</sup> 마게<그림 8>로 하고, 치아를 검게 칠한다<sup>25)</sup>.

마이코의 와레스노부 스타일은 머리카락을 한테 모아 정수리에 엮고는 붉은 견직 끈으로 앞뒤를 단단히 여민 후, 화류계 특유의 장신구인 간자시(簪: 비너)<sup>26)</sup>로 모양을 낸다<그림 12>. 이러한 머리 모양을 유지하기 위해 잠을 잘 때에도 밀 깎질 주머니를 올려놓은 높은 목침인 다카마쿠라(高枕)를 베고 잔다<sup>27)</sup>. 대나무 끈으로 모양새를 유지하는 이러한 헤어스타일은 1주 또는 2주 동안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어린 마이코가 이런 머리를 몇 년 하고 나면 정수리 일부가 벗겨지게 된다.

교토 마이코의 경우, 특별한 행사에 참석할 때는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 헤어스타일을 해야 한다. 구로몬츠키의 정장예복을 입을 때의 삿코 마게(先笄鬘)<그림 8>의 스타일과, 7월에 열리는 기온(祇園) 축제 전후 한 달 동안 해야 하는 가츠야마(勝山)<그림 9> 스타일이 있다. 이와 같이 헤어스타일을 바꿈으로서 성숙해가는 마이코의 경력을 나타내며, 일본 전통의 축제인 마츠리(祭り)와 같은 특별한 행사를 알려 치장의 즐거움으로 삼았다. 각각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의 結髮의 차이점과 특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 ① 와레스노부(割れ信夫)

어린 마이코의 헤어스타일로, 우선 앞머리를 높이 올려서 끈으로 묶고, 머리 속에 아리마치 가노코(ありまち鹿の子)라는 붉은색의 흘치기염이 된 crepe 직조의 천을 장식하며, 상투의 상하 2단으로 나누어 있어서 붉은 천인 가노코가 보이기 때문에 와레스노부라고 불리게 되었다. 이 붉은 천은 아직 완숙되지 않은 미성년으로 어린 마이코임을 상징한다. 마지막으로 정수리에 가노코도메(鹿の子留め)<그림 12>를 꽂고, 橘이 달린 간자시를 꽂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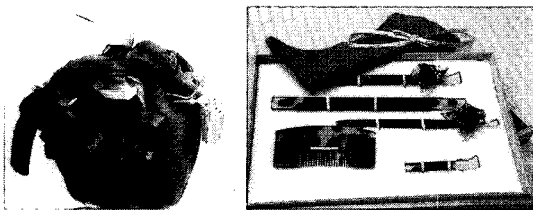
〈그림 6〉 와레스이노부의 結髮모습과 장신구<sup>28)</sup>

② 오후쿠(おふく)

年長の 마이코의 헤어스타일이다. 마이코로 데뷔 후 2-3년이 되면 와레스이노부에서 오후쿠 스타일로 바뀌는데 이는 좀 더 성숙한 마이코가 되었음을 뜻한다. 원래는 에도시대 少女의 헤어스타일이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교토의 마이코를 상징하는 스타일이 되었다. 그리고 붉은 색에 銀箔을 찍은 crepe의 천으로 상투의 아랫부분을 고정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7〉 오후쿠의 結髮모습<sup>2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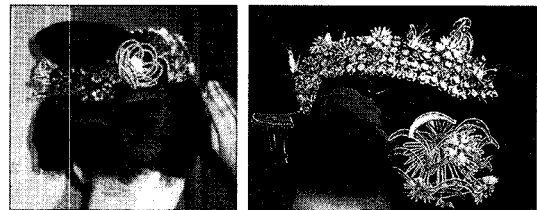
〈그림 8〉 삿코 마게의 結髮모습과 鬘甲 장신구<sup>30)</sup>

③ 삿코 마게(先弁鬘)

게이샤가 되기 위한 절차인 에리카에 직전의 헤어스타일로, 마이코 과정의 마지막 헤어스타일이다. 원래는 江戸時代 後期 교토(京都) 町家の 젊은 여인들이 하던 스타일이었다. 교토의 마이코의 경우, 삿코 스타일을 할 때는 이를 검게 칠한다. 이는 게이샤가 되어 제구실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음을 뜻한다. 간자시의 경우도 鬘甲으로 통일하며, 하나 간자시(花簪)로 마무리한다.

④ 가츠야마 마게(勝山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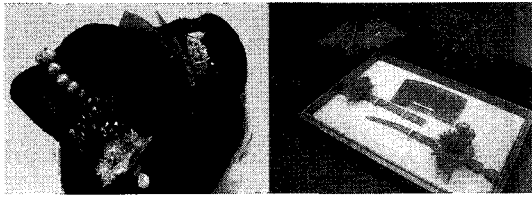
성장한 마이코가 기온마츠리(祇園祭り)때인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하는 스타일이다. 에도시대 초기 遊女인 가츠야마(勝山)가 고안하여 즐겨한 스타일로 시작하여 가츠야마 마게라고 불렸다. 가츠야마 마게는 우아한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에도시대 중기에 이르자 遊女들이 즐겨하게 되었으며, 말기 이후에는 무가의 기혼여성들도 따라하게 되었다. 그 후(元祿시대) 일반여성에게까지 파급되었다. 특징은 좌우를 둥그렇게 부풀리고 상투를 바퀴모양으로 말아 올린 점이다. 이때 머리 장신구는 호화로운 銀세공으로 통일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9〉 가츠야마 마게의 結髮모습과 장신구<sup>31)</sup>

⑤ 삿코 시마다(奴島田)

年長の 마이코가 正裝時에 하는 헤어스타일이다. 원래 에도시대의 町人들이 즐겨하던 시마다(島田) 스타일로, 상투를 높이 올려 붉은 색의 천과 구슬이 달린 끈으로 묶는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정식 게이샤의 시마다 마게와 구별하기 위함이다.



<그림 10> 오타코 시마다의 結髮모습과 장신구<sup>32)</sup>



<그림 11> 시마다 마계의 結髮모습<sup>33)</sup>

## (2) 게이샤의 헤어스타일

정식 게이샤가 되면 일반적인 시마다 마계(島田髷) 스타일을 한다<그림 11>. 시마다 마계(島田髷)란 가장 일반적인 헤어스타일로, 특히 미혼여성이나 화류계 여성이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기본형은 머리를 반대쪽으로 접어서 고정시키는 심플한 스타일이지만, 인기가 많아서 지역이나 신분, 직업이나 개인의 취미가 반영되어 여러 가지 스타일로 파생되었다. 본격적인 시마다 마계의 등장은 江戸時代 初期였다. 시마다 마계의 원형은 미성년 남자의 발형인 若衆髷으로, 이 髮型을 遊女가 여성적인 스타일로 개량하여 묶은 것이 시마다 마계의 시초였다. 이 스타일은 곧 크게 유행하여, 귀천을 불문하고 많은 여성들이 즐겨하는 스타일이 되었다<sup>34)</sup>.

## 5) 장신구

### (1) 가노코 도메(鹿の子留)

머리를 묶거나 장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천인 가노코(鹿の子)를 고정시키기 위해 정수리에 꽂는 머리핀과 같은 장신구이다<그림 12>.

### (2) 간자시(簪)

간자시(簪)란 일종의 비녀로 일본의 전통적인 장

신구이다. 간자시의 본체부분은 銀, 錫, 眞鍮 또는 希少品이었던 유리, 鼈甲, 杣木, 牛角 등을 사용하며 최근에는 플라스틱도 사용한다. 장식부분에는 귀금속, 보석, 준보석, 琥珀, 珊瑚 등을 사용한다. 그 종류는 히라우치 간자시(平打簪), 다마 간자시(玉簪), 비라비라 간자시(びらびら簪), 하나 간자시(花簪) 등 종류가 다양하다<그림 12>.

① 히라우치 간자시(平打簪): 에도시대 武家の 여성이 銀에 家紋을 새겨 사용한 것이 유래가 되었는데, 게이샤들도 오키야의 가문이 새겨진 간자시를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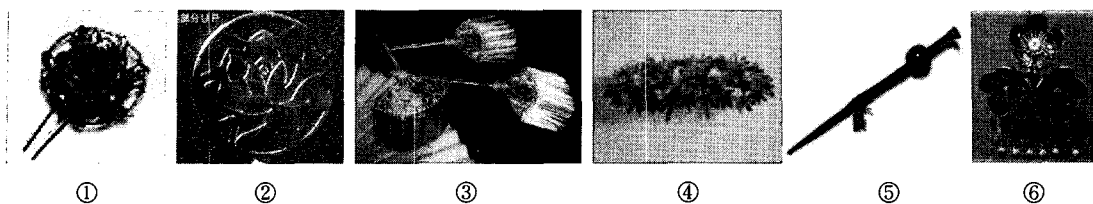
② 비라비라 간자시(びらびら簪): 江戸時代 미혼 여성이 사용했던 것으로, 본체에 가는 고리가 여러 개 달려있어서 달랑거리며, 본체 위에 나비나 새 등의 장식이 달려있는 호화로운 장신구이다. 마이코시절 동안에만 사용하는 장신구이다.

③ 하나 간자시(花簪): 마이코와 게이샤들은 12 계절을 나타내는 季節花를 꽃음으로서 계절의 변화를 나타냄과 동시에 개인의 취미와 개성을 반영한다. 1월에는 「松·竹·梅」를 바꿔가며 꽂고 여기에 벚이삭을 포인트로 꽂는다. 2월에는 매화, 3월에는 곡식의 씨, 4월 벚꽃, 5월에는 藤, 창포, 6월에는 버드나무, 7월에는 부채모양의 조화, 기온마츠리(祇園祭り) 때에는 은세공 간자시를, 8월에는 역새와 나팔꽃, 9월에는 도라지, 10월에는 국화나 小菊, 11월에는 紅葉, 12월에는 모치바나(もち花)라고 하여 종이에 자신이 좋아하는 가부키 배우의 이름을 쓴 후 이를 다른 꽃과 함께 장식한다. 이러한 하나 간자시는 보통 마이코가 게이샤보다 더 화려하면서도 정교한 것을 꽂는다.

④ 다마 간자시(玉簪):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기다란 귀 쭈시개 바늘에 산호나 옥으로 만든 구슬을 끼워 넣은 머리 장신구이다. 구슬 크기에 따라 二分玉, 三分玉, 五分玉 등이 있다.

⑤ 치리칸(チリカン): 치리칸은 아주 특별한 장신구로, 마이코 데뷔 후 첫 사흘 동안만 꽂는다.





〈그림 12〉 ①가노코 도메 ②히라우치 간자시 ③긴바라 간자시 ④하나 간자시 ⑤다마 간자시 ⑥치리킨<sup>35)</sup>

(3) 가고(籠:かご, 주머니)

마이코와 게이샤는 가고라고 부르는 일종의 전통적인 핸드백이 있다. 이것은 훌치기염을 한 다채로운 색상의 실크를 바구니 짜듯 엮어서 만들었으며, 끈으로 입구를 줄라매는 작은 핸드백이다(그림 13, 左).

이샤의 경우는 기모노의 색상이나 개인 취향에 맞는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신는다(그림13, 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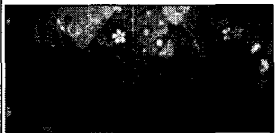



〈그림 13〉 (左)가고, (右)나막신<sup>36)</sup>

(4) 나막신(下駄:げた)

평상시 게이샤는 굽이 낮은 sandal인 조리(草履)를 신지만, 날씨가 나쁠 경우는 나막신을 신는다. 마이코는 특별히 검은색 라커가 칠해진 木靴인 오코보(おこぼ)를 신는데, 굽 높이는 대략 11cm 정도이다. 그리고 마이코의 경우 수련과정에 따라 오코보의 끈이 붉은 색에서 분홍색, 파란색의 순으로 바뀐다. 게

〈표 1〉 미나라이, 마이코, 게이샤의 복식 비교

구분	미나라이	마이코	게이샤
기모노	호화롭고 화려한 기모노 어깨에 tuck이 있음 후리소데(振り袖)도 다소 짧음	데뷔 초기에는 화려한 문양의 기모노를 입지만, 경력이 쌓일수록 점점 심플한 문양의 기모노 착용 어깨에 tuck이 있음 행사: 구로몬츠키(黒紋付き) 착용	도메소데(留め袖)의 심플한 기모노 어깨에 tuck이 없음 행사: 구로몬츠키(黒紋付き) 착용
항에리	 데뷔 초기에는 호화로운 빨간색의 깃인 항에리(半襟) 부착. 경력이 쌓일수록 점점 흰색에 가까운 깃으로 바뀌어 담	 	 흰색 바탕에 흰색, 은색 자수가 수놓인 항에리 부착
오비	가슴 위로 높이 맴 짧은 한다라(半だら)오비 오비아게는 오비 밖으로 펼쳐보임 	뒤로 길게 늘어뜨림 가슴 위로 높이 맴 경력이 쌓이면 오비아게는 묶어서 오비 속으로 넣음 	가슴 밑으로 맴

구분	미나라이	마이코	게이샤
화장	목, 얼굴 하얀 화장 눈썹, 눈 주위 빨간색과 검은색 화장 눈 주위와 붉은 핑크로 넓게 퍼 바 르고, 아랫입술만 진홍으로 조그맣게 바름	목, 얼굴 하얀 화장 눈썹, 눈 주위 빨간색과 검은색 화장 핑크색의 볼터치 양 입술 조그맣게 바름	목, 얼굴 하얀 화장 일자형의 검은색 눈썹 부드러운 색조화장 양 입술 전체를 바름
헤어 스타일	평상시 와레시노부(割れしのぶ)	데뷔초: 와레시노부 2-3년 후 : 오후쿠 게이샤 데뷔 1-4주전 : 삿코(先笄)	시마다마계(島田髷)
	정복 축제	얏코 시마다(奴島田)	시마다마계(島田髷)
정월 : 삿코(先笄) / 기온축제 : 가츠야마(勝山)			
장신구	머리에 화려한 간자시(簪)를 꽂음 가고 붉은색의 끈이 달린 오코보	간자시 : 수련 과정이 쌓일수록 간 소해짐 치리칸(チリカン) : 데뷔 첫 사흘 간만 꽂음 나막신 : 연륜에 따라 끈이 붉은색 -핑크색-파란색 순으로 바뀜	수수한 간자시 사용 가고 나막신 : 색상은 취향에 맞게 선택

## 2. 일본 전통 게이샤문화의 美意識

### 1) '이키(粹 : Iki)'의 美

지식과 예술적인 재능을 지닌 게이샤의 美는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미적 개념인 '이키(粹)'로 대표된다. '이키'란 에도시대(江戸時代) 후기, 서민들 사이에서 발생한 美意識(美的觀念)을 말하는데, 기질, 모습, 색채, 무늬 등이 세련되고 멋진 것을 의미한다<sup>37)</sup>. 이것은 에도풍(江戸風)을 말하는 것으로, 정통적인 京風, 上方風<sup>38)</sup>이나 武家風이 아닌 서민풍을 추구한다.

일본의 사상가인 구키슈조(九鬼周造)는 '이키'를 일본민족에 있어서 독자적인 미의식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의 논문 중 '이키'의 현상을 논리적으로 잘 파악한 것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이키'가 내포하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sup>39)</sup>.

첫째, 이성에 대한 '미태(媚態)'이다. 미태는 요염함, 야합, 성적 매력 등을 갖는다. 따라서 '이키'에도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의기' 즉 패기이다. 이것은 에도사나이의 기개를 말한다. '무사는 굽어도 이를 쏘신다'는 말에서도 '이키'의 활기찬 무사도 정신을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세련미, 위세, 활달함 속에 기품 내지 품격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이키' 안에는

에도문화의 도덕적 이상이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다.

셋째, '체념'이다. 이는 운명에 뿌리를 두고 집착을 떨쳐낸 담담무구한 마음을 말한다. 또한 '이키'는 냉정한 속세를 거쳐 때를 벗어난 것이다. 즉, 깨끗하고 산뜻하며 말끔한 마음가짐이어야 한다. 이는 空無·열반을 平等相의 원리로 삼는 불교의 세계관과 악연에 대해 체념을 선택하고 운명에 대해 靜觀을 가르치는 종교적 인생관이 배경을 이룬다.

이상과 같이 구키슈조가 말하는 '이키'를 정의하면, '때를 벗은 체념, 고집이 있는 기개, 요염한 미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일본문화의 특색을 이루고 있는 도덕적 이상주의와 종교적 비현실성에 의해 자기 존재를 실현하는 미태이다.

원래 '이키(粹)'의 미의식은 에도의 화류계와 가부키(歌舞伎) 세계를 중심으로 짝이 트기 시작하였다. 이 당시의 화류계는 이른바 시민문화가 결집된 새로운 중심이며, 武家, 다이묘(大名) 등이 즐기던 장소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게이샤와 가부키(歌舞伎) 배우들 중심의 예능과 함께 하나의 미적문화를 형성해갔는데, 여기서 정통적인 무가의 도덕이나 견실한 시민의 윤리관과는 다른 독특한 생활태도가 생겨났다. 즉, 정통세계가 '야보(野暮)<sup>40)</sup>', '俗'이라 한다면, 이러한 세계와는 다른 '雅', '소탈', '이키'라는 비판적인 생활태도가 화류계라는 독특한 미적이

치관을 가진 신혼세계를 온상으로 하여 점차 시민 사회로 확대되었다<sup>41)</sup>.

일본인들은 자연의 상징물로 버드나무나 가랑비를 '이키'라고 느낀다. 게이샤의 세계인 화류계(花柳界)를 꽃과 버드나무로 상징한다는 점에서도 '이키'의 세계와 통하는 것이다. 게이샤들의 목 부분의 화장은 깃을 젖혀 옷을 입을 때 미태를 강조하기 위함이었으며, 이것이 '이키'의 표현이었다. 서양의 테코르테처럼 어깨에서 가슴 부분과 등 부분을 노출하는 것보다는 옷깃을 젖혀 입는 것이 '이키'로서의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옷단을 왼손으로 잡는 것도 '이키'의 표현이다<sup>42)</sup>. 한겨울 견어 올린 옷단 속에서 살짝 보이는 속옷과 버선을 신지 않은 맨발이 '이키'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게이샤의 범도에는 '유녀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개로 살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한다'는 의미 속에도 '이키'의 속성을 읽을 수 있다. 게이샤의 함축된 스타일은 미적 범주와 상반되는 것들 간의 치밀한 균형이며, 게이샤들은 의상, 예절, 예술적 추구를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 무수한 시간들을 쏟아 부으며 이 같은 균형을 유지했다. 즉, 천박한 화려함의 무절제를 피하는 것이 진정한 '이키'의 스타일이었다.

이와 같이 '이키'는 에도시대 유행현상으로서 화류계를 중심으로 나타났지만, 미적 생활태도인 '이키'는 화류계에만 그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일본인의 미의식으로 정착되었으며, 나아가 일본인들이 이상으로 여기는 생활 이념이 되었다.

한편 일본 복식에서 유행한 '이키'의 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컬러의 절제로 표현되는데, 검은색, 회색 등의 무채색과 갈색, 감색 등의 차분한 색채가 특징이다. 이는 색채가 생활태도나 정신태도의 기본을 반영한데서 기인했다. 이 중 회색은 '이키' 속의 '체념'을 색채로 나타내기 적합한 색이다. 그래서 회색은 에도시대부터 후카가와(深川)회색, 은회색, 남회색, 흑회색, 홍회색 등 여러 종류의 뉘앙스로 나타내어, '이키'한 색으로 여겨졌다<sup>43)</sup>. 주로 침착하고 수수한 색을 기조로 하여 세밀한 톤(tone)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여기에 화려한 색채를 약간 가미시켰는

데, 그중 많이 쓰인 색이 자색이다. 특히 에도자(江戸紫)는 남색을 띤 자색으로, 깨끗하고 산뜻하며 담백해서 일본인의 미의식인 '이키(いき)'에 대한 기호색이 되었다<sup>44)</sup>.

둘째, 문양에 있어서도 종래의 복잡한 문양이나 정성들인 디자인이 단순한 문양으로 새로움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인 문양의 예로는 줄무늬와 체크무늬, 그리고 에도코몬(江戸小紋)이라고 하는 작은 문양도 이키의 멋을 대표한다. 또한 홀치기염에서도 전체를 전부 나타낸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취향이 아니라, 한 개씩 즐라맨 산뜻한 맛을 선호했다. 가능한 무익한 것을 생략하고, 남아있는 최후의 것에 의해 美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걸치장을 버리고 화려한 색을 억제하면서 작은 색을 살리거나, 호화로운 기법을 피하면서 섬세한 문양에 집중했다<sup>45)</sup>. 에도시대에 그려진 우키요에(浮世繪)의 판화를 보면 여성의 자태미와 기모노의 문양에서도 '이키'의 미가 잘 나타나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4).



<그림 14> (左) 葛飾北齋, 夏朝圖, (右) 喜多川歌麿, 洗い張り<sup>46)</sup>

이와 같이 세속적인 취미의 반감에서 생겨난 '이키'의 단순함과 세련미는 일본 복식사상 강렬한 빛을 남겼으며, 이러한 미의식은 현대패션에도 영향을 주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세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일본인들의 의식과 삶 속에 배어있는 '이키'의 미의 발로인 '비구축적 디자인(unconstructed design)의 미'로 파리 모드에 충격을 안겨다주었다. 이때 등장한 잇세이 미야케(Issey Miyake), 미즈히

로 마츠다(Michuhiro Machuda),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은 이전의 서구의 복식이 추구해온 종래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는 새로운 개념의 패션을 선보여 서구패션에 혁명을 불러일으켰다<sup>47)</sup>.

## 2. '다테(伊達 : Date)'의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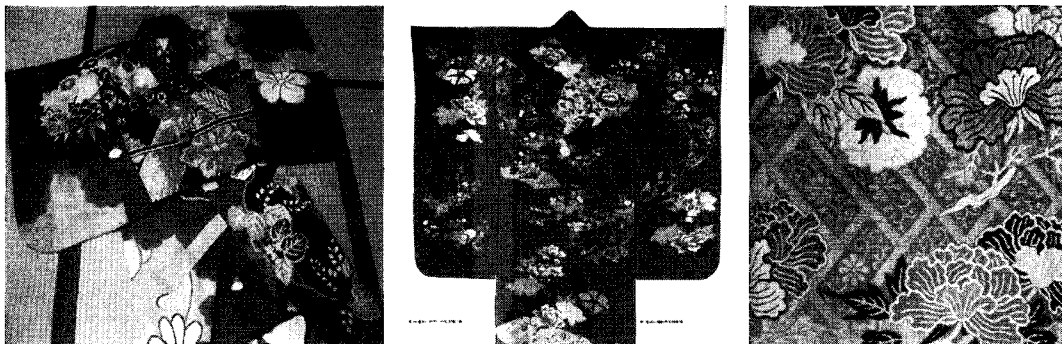
게이샤의 기모노는 그 색채와 문양에 있어서 단순하고 세련된 점에서 '이키'하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마이코의 기모노는 그 문양이나 색채가 화려하여 '다테(だて:伊達)'의 미에 속한다.

복식에서의 다테는 외견상 화려하게 걸땀을 살려 사람의 눈을 끄는 미적인 효과를 강조한다<sup>48)</sup>. 특히 기모노의 다테 美는 모모야마시대(桃山時代, 1573-1603)의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 1534-1582)와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에 의한 부와 권력의 독점을 배경으로 극치를 이루었다. 당시 다이묘(大名)가 된 武將의 아내들과 해외무역으로 거대한 이익을 얻은 상인의 부인들은 화려한 기모노를 선호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세적인 기쁨을 누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다채로운 기모노를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여기에 박차를 가한 것이 연예인이나 遊女들이었다. 이들은 타인의 이목을 끌기 위해 화려한 기모노를 걸쳤는데, 이러한 卑俗性을 가진 화려함이 기모노를 비약적으로 발달시키는 결과를 낳았다<sup>49)</sup>. 다이묘(大名)를 중심으로 하는 초닌(町人)계급, 유녀를 중심으로 하는 예능계급이

기모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더욱더 다채로운 것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서민의 의생활에까지 파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다테'의 미는 도쿠가와(德川) 막부체제가 확립되면서 시들어져갔다. 도쿠가와 막부는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고, 그로 인해 사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정책을 펴나갔다. 그러나 도시 소비경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한 민중은 금령을 피해 사치스러운 풍류의 전통을 고수하려 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세련되고 멋진 디자인을 낳게 하였으며, 이를 기조로 에도시대 초기(江戸時代初期, 1603-1790)는 복식의 색채와 문양 등에서 기발함과 화려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에도시대 중기(1790-1800년대 초기)에 이르자 새로운 염직기술이 발달하면서 직조, 箔, 자수, 홀치기염 등의 기술과 友禪染의 기법이 자유롭게 사용되면서 기교면에서도 다채롭고 세밀하게 나타났다(그림 15). 부유한 계층의 시민들은 다채롭고 화려하며 호화로운 것을 추구하였다. 특히 가부(歌舞)·연극의 무대는 당시 유행의 중심지였으며, 무가(武家)의 여성들도 은밀히 배우들의 새로운 장식 기법을 흉내 내었다.

이와 같이 기모노 한 장에 技와 디자인을 집중시켜 그 아름다움을 추구한 것은 실루엣의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염색과 문양, 자수 등을 통해 다채로움을 표현하려는 의도였다. 더욱이 에도시대 말기부터 繼織<sup>52)</sup>이나 金銀襷 등의 오비를 활용하게 되면서 기모노의 다테 美는 그 빛을 더했다.



<그림 15> (左)마이코의 의상<sup>50)</sup>, (中)振り袖, 梅牡丹紋様, 江戸時代, (右)牡丹紋様唐織, 江戸時代<sup>51)</sup>

## IV.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표현된 색채의 상징성

### 1. 영화의 개관

영화 <게이샤의 추억 : Memoirs of a Geisha>은 1997년 발간된 아서 골든(Arthur Golden)의 로맨스 소설인 <Memoirs of a Geisha>라는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이 영화는 1930년대 일본을 배경으로 가난한 어부의 딸에서 교토의 하녀로 팔려가 그곳에서 최고의 게이샤로 성장한 '사유리'라는 실존인물을 그렸다. 제78회 아카데미상 후보지명에서 촬영, 미술, 의상, 음악, 음향, 음향효과 편집상 등 총 6개 부문의 후보에 올랐으며, 이 중 촬영상, 미술상, 의상상을 받았다.

총 제작비 8천5백만 달러가 투입되었으며<sup>53)</sup>, 스티븐 스피버그, 톱 마셜, 존 윌리엄스 등의 제작진들로 구성된 작품이다. 음악은 아카데미상을 5회나 수상한 존 윌리엄스(John Williams), 첼로에는 요요마(Yo-Yo Ma), 바이올린에는 이자크 펄만(Itzhak Perlman)이 맡아 주인공의 이미지에 맞는 아름다운 선율을 보여줬다. 첼로의 솔로부분이 사유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어린 소녀의 외로움을 표현했다. 바이올린은 회장의 심리를 표현했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의상상을 수상한 콜린 앳우드(Colleen Atwood)는 기모노를 각 캐릭터의 개성, 지위에 맞춰 계절별로 다른 250벌의 의상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실에서 기모노의 디자인부터 염색, 패턴, 자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을 완성했다. 일본에서는 보통 1년이 넘게 걸리는 기모노 한 벌을 1-2주에 완성했다. 그녀는 등장인물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통에 구애받지 않고 캐릭터(character)별로 다른 기모노를 제작했다.

게이샤의 독특한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은 100여명의 신세대 메이크업 전문가들이 6주간 일본화장을 배워서 연출하였다. 또한 조명감독 스킷 로빈슨은 교토 지역 특유의 평온한 햇살의 느낌을 스크린에 고스란히 표현하려고 실크 라이팅 조명으로 2500평에 달하는 하늘을 실크로 가리고 촬영했다<sup>54)</sup>.

### 2. 등장인물별 색채의 상징성

이 절에서는 등장인물 중 당대 최고의 게이샤인 사유리, 하츠모모, 마메하 3인을 선정하여 캐릭터별로 묘사된 색채의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 1) 사유리-순수

하녀출신의 소녀에서 당대 최고의 게이샤로 성장하는 사유리는 한 남자만을 향한 순수한 매력을 지닌 소녀다. 사유리 의상은 그녀의 감정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었기 때문에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을 많이 썼다. 그 중 회색, 파란색으로 은은하고 침착한 분위기를 표현했다. 사유리라는 인물은 어린 시절부터 마이코, 게이샤가 되기까지, 그리고 전후의 시대 등 30년대, 40년대를 걸치면서 달라져가는 배경을 그녀가 입는 기모노를 통해 잘 묘사하고 있다. 여기에 색채가 더해져 성숙해져가는 게이샤의 모습을 담고 있다.

주인공 사유리를 상징하는 색채는 전체적으로 grayish blue로 표현된다. blue는 청회색의 신비한 눈동자와 함께 불의 운명을 타고난 주인공을 표현하기에 적합한 색이다. 또한 물과 같이 돌이 나오면 비껴 흐르고 앞이 막히면 새 길을 뚫는 사유리의 강인한 성격을 나타낸다. 불행했던 어린시절의 치요는 물결무늬의 푸른색이 감도는 gray color의 기모노를 입었다. 그리고 성숙한 게이샤가 된 사유리 역시 grayish blue의 도메소데(留め袖)를 입었으며, 전쟁이 끝난 후 회장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폭포 줄기가 쏟아지는 grayish blue의 기모노를 입었다. 사유리를 상징하는 grayish blue는 최고의 게이샤가 되기 위해 거친 운명을 헤쳐 나가는 강인함과 어린 시절 간직해온 사랑을 마침내 성취하는 사유리라는 캐릭터 그 자체였다.

#### 2) 하츠모모-질투, 표독한 아름다움

질투와 복수, 열정에 휩쓸리는 하츠모모는 실제 게이샤의 기모노보다 더 강한 색채와 문양의 기모노를 입었다. 짙은 화장과 싸늘한 눈동자로 애초부터 사랑을 일종의 유희나 짜릿한 모험으로 여기던

하츠모모는 라이벌인 사유리를 꺾어버려서라도 자신의 지위를 차지하려는 팜프파탈(femmes fatales)이다. 그 어느 게이샤보다도 화려한 삶을 누리지만, 사랑만은 선택할 수 없는 게이샤의 운명에 좌절하는 인물을 그려냈다.

하츠모모를 상징하는 색채는 주로 red와 violet, black이다. red는 불같은 열정과 매혹적인 게이샤의 모습을, violet은 질투와 공격적인 성격을 묘사하였다. 그리고 black은 게이샤의 正裝으로, 여기에 금색 오비나 화려한 프린트를 사용하여 표독스러우면서도 도발적인 미태를 자아냈다. 또는 모피가 달린 현대적인 코트를 착용하여 하츠모모의 독특하고 세련된 감각과 당시의 패션을 리드해가는 게이샤모습을 연출했다. 일상생활에서 입는 유카타(浴衣)도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오히려 현대적인 tea-gown을 착용하여 도발적인 멋을 표현했다.

평시의 헤어스타일도 전통적인 게이샤의 시마다마게(烏田髷) 스타일과는 달리 반은 풀어헤친 모습이다. 이는 하츠모모의 반항적이면서 난폭한 모습, 규율을 어기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성격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뛰어난 패션 감각으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창조해내는 인물을 그렸다. 이를 위해 하츠모모의 스타일을 가부키 배우처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하기도 했다.

### 3) 마메하-우아, 강인함

하츠모모의 강력한 라이벌이자 당대 최고의 게이샤인 마메하는 회장의 부탁으로 사유리를 최고의 게이샤로 가르친다. 극 중 “소리치고 싶을 정도로 가슴은 찢어져도 마음속으로만 울어라!”, “결혼도 안돼, 아이도 못 가져, 사랑해서도 안돼”라는 게이샤의 감정과 정서를 하얀 화장 속에 숨겨 살아야 하는 게이샤의 삶을 냉철하게 실천하는 강인한 인물이기도하다. 치열한 생존경쟁인 게이샤의 세계에서 마메하는 기량과 미모, 철학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여인으로 그려냈다. 마메하는 우아하고 고상한 게이샤에 걸맞게 주로 일본 상류층이 입는 기모노를 입었다. 색채는 카키(khaki), 옅은 자줏빛의 단조로운 색채가 주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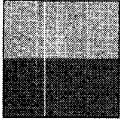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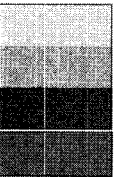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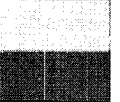


### 3. 등장인물별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및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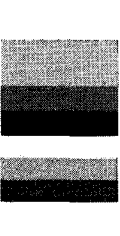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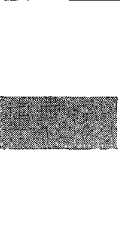


색상은 촬영시의 조명상태에 따라 변하며, 더욱이 스크린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이는 색상을 정확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보이는 색상일지라도 감독과 의상디자이너가 색채를 통해 인물의 특성과 감정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파악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인물별로 착용한 기모노(着物)의 배색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기모노와 오비와의 배색을 고려하여 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면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스크린에 보이는 색상과 가능한 한 유사한 색상을 추출하여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과 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색채의 분석방법은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eyedropper tool로 색상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color palette를 제시하였다.

#### 1) 사유리

어린시절의 사유리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단색계통의 기모노에 붉은색 계통의 오비를 accent color로 활용하는 반대색상 유사색조 배색이 주된 모습이다. 이러한 배색은 어린시절의 고통스럽고 참담한 하녀신분을 표현하려는 감독의 의지가 엿보인다. 그러나 마이코로 데뷔하면서 화류계의 꽃이라는 역할에 맞게 주로 따뜻한 색채를 활용한 동일색상 유사색조 배색,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으로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을 그렸다. 그리고 게이샤가 된 사유리는 grayish blue계열로 내적으로 보다 성숙한 게이샤의 모습을 연출했다. 戰後에는 시대의 궁핍함과 암울함을 반영하듯 역시 grayish blue계열의 동일색상 동일색조 배색으로 소박하고도 이지적인 모습을 표현했다.

〈표 2〉 사유리의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및 이미지

scene	color palette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이미지
		대비색상 유사색조 배색 khaki color의 기모노(着物)에 red color의 오비(帶)가 accent	하즈모모의 계략에 휘말려 비참하게 맞는 모습 절망, 좌절
		대비색상 대비색조 배색 연회색 기모노에 주홍색 오비가 accent	희망을 만난 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기뻐함 꿈, 희망
		무채색의 대비색조 배색 야가스리(矢絰)문양의 유카타(浴衣)	게이샤가 되기 위해 전통무용을 배우는 어린 소녀의 모습 충실, 인내
		대비색상 유사색조 배색 pink와 blue의 반대색상으로 배색된 기모노 light grey의 오비로 상하의 색상대비를 완화시킴 accent color : 주홍색의 오비아게(帶揚げ)	사랑스러움
		동일색상 유사색조 배색 light pink와 bright red의 화려한 배색 accent color : 주홍색의 오비아게(帶揚げ)	로맨틱하고 관능적인 마이코의 이미지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 광택있는 beige color 기모노와 brown color인 오비와의 부드러운 배색 accent color : 주홍색의 부채	무대에서 춤추는 마이코 우아, 매력적

scene	color palette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이미지
		대비색상 대비색조 배색 pale blue의 기모노와 beige, brown의 오비	정원을 산책하는 마이코 순수, 청순
		대비색상 유사색조 배색 기모노와 오비의 바탕은 동일색상 배색이 지만, 오비에 여러 색으로 화려하게 프린트 accent color : 주홍색의 오비아게(帶揚げ)	당대 유명한 게이샤로 성장하여 타인 의 이목을 집중시킴 자신감
		동일색상 동일색조 배색 grayish blue의 이로우지(色無地)기모노와 오비	전쟁이 끝난 후 회장을 만나는 모습 수수함, 성숙함
		동일색상 동일색조 배색 accent color : 꽃 프린트의 blue color	회장을 만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 행복, 환희

## 2) 하츠모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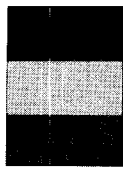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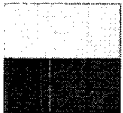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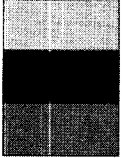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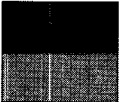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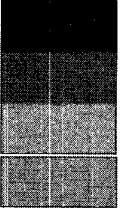
하츠모모는 거칠고 반항적이며, 불같은 성격으로 이에 어울리는 강한 대비의 반대색상 대조색조 또는 유사색상 대조색조, 반대색상 유사색조배색이 주된 특성이다. 이러한 배색은 하츠모모의 화려한 외모와 이에 걸 맞는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 3) 마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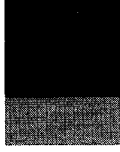


마메하는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과 유사색상 동일 색조 배색으로 단아한 귀부인의 기모노를 착용하였다. 그녀의 내면에는 자신의 계획을 빈틈없이 실천에 옮기는 단호하고 냉철한 의지가 숨겨져 있다.



<표 3> 하츠모모의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및 이미지

scene	color palette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이미지
		부채색과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	뇌쇄적인 아름다움, 도도한 자태
		동일색상 배색 fashionable한 tea-gown형의 유카타	치요를 멸시하는 장면 공격적, 불같은 성격
		유사색상 대조색조 배색	치요의 아름다움을 시기, 질투
		대비색상 대비색조 배색 red color의 부채가 accent	능수능란한 화술을 자랑
		대비색상 대비색조 배색 구로몬즈키(黒紋付き)의 공식예복에 red계열의 오비가 accent color 나고야 오비무스비 (名古屋帯結び)	자신의 경쟁자로 성장한 사유리를 시기하여, 그녀를 파멸시키려고 계락을 펼치는 장면 음모, 계략
		대비색상 유사색조 배색 호화로운 모피가 달린 하오리(羽織) 착용	패셔너블한 감각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하츠모모 도도함, 자신감

<표 4> 마메하의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및 이미지

scene	color palette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	이미지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 모피가 달린 하오리(羽織) 착용	사유리의 대모를 설득하려는 굳은 의지가 숨어있음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 two-tone color의 기모노에 금박을 한 khaki color의 오비가 단아한 느낌 연출	사유리를 최고의 게이샤로 만들기 위해 권모술수를 부리는 마메하
		동일색상 유사색조 배색	고상하고 우아한 모습 속에서도 단호한 의지를 엿볼 수 있음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 accent color : 브라운색상의 오비	치밀하게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마메하

#### 4.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나타난 미의식과 전통 게이샤의 미의식과의 차이점

일본 게이샤의 미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키'와 '다테'의 미로 대표된다. '이키'의 아름다움은 단순함 속에서 세련미를 추구한다. 이에 반해 '다테'는 섬세한 공을 들인 화려한 외관을 중시한다. 따라서 마이코의 소녀다운 화려함을 '다테'의 미로 꽃을 피운다면, 이에 반해 게이샤는 성숙한 연륜에 맞게 세련된

이미지의 '이키'의 미로 정리된다고 하겠다.

하지만 영화는 일본의 전통적인 미의식에까지는 반영하지 못하고 감각적인 영상에 치우친 점이 많다. 여기서 전통적인 게이샤의 미와의 차이를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통 기모노는 직조기술이나 염색, 자수 등으로 완성하는데 1년 이상의 시간과 공을 들이지만, 영화에서 입고 나온 게이샤의 기모노는 불과 2주 만에 주로 실크 프린트 기법을 사용하여 만들어졌

으며, 지나치게 화려한 금박이나 원색 중심의 프린트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전통기모노의 직조나 염색 기법에서 느낄 수 있는 섬세한 '이키'의 미와 '다테'의 미를 살리지 못하였다.

둘째, 이 영화의 감독도 몸매의 곡선을 드러내는 기모노 의상을 제작하였다고 밝힌 것처럼<sup>55)</sup>, 일부러 얇은 원단을 선택하여 실루엣에 있어서 게이샤의 관능적이고도 육감적인 모습을 표현하였다. 일본 기모노의 변천사를 보면 에도시대 말기 이전까지는 육체의 부드러운 선이 살아있었다. 이는 오비(帯) 폭이 좁고 얇은 원단을 사용하여 기모노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육체미와 함께 기모노의 자태미를 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에도시대 말기에 이르러 오비가 지나치게 장식성에 치중하면서, 오비 폭이 넓어지고 여기에 호화로운 문양으로 직조된 두꺼운 원단으로 바뀌게 되자 자연히 여성의 육체미는 가려지게 되었다.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인 1930년-1940년대의 기모노스타일도 이미 육체미를 감추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으로 변천한 후이므로, 영화의 기모노스타일은 전통적인 실루엣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다.

셋째, 평상시에 하츠모모가 입는 유카타의 경우도 木棉의 전통적인 유카타(浴衣)와는 달리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한 서양의 티 가운(tea-gown)을 착용하여 몸매의 곡선을 드러내었다. 이는 하녀인 치요(사유리)의 신분과 구별함과 동시에 성공한 게이샤의 부(富)를 표현하려 한 것이다.

넷째, 게이샤의 헤어스타일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와레시노부나 오후쿠 스타일, 시마다 마게는 볼 수 없고, 현대적인 헤어스타일로 변화되었다.

다섯째, 영어와 중국 배우들이 일본 전통문화의 향기를 가린다. 게이샤 역에 중화권 배우를 기용한 것은 전 세계 영화팬들을 위해 만들어진 상업적인 영화이기 때문이지만, 이러한 점이 오히려 영화 주제에서 느낄 수 있는 일본의 고유한 문화의 멋을 잃어버리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더욱이 중국 정부는 게이샤 역을 중국 배우들(장쯔이, 공리, 양쯔충)이 맡아 출연하자, 反日感情을 부채질한다는 이유로 중국에서의 상영을 중지시키기도 했다.

여섯째, <게이샤의 추억>은 게이샤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아니라 게이샤라는 직업의 호기심에 맞춰진 감각적인 영화라 할 수 있다. 사유리의 처녀성을 경매에 붙이는 대목과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안무, 야외 혼탕 등도 서구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몽환적인 일본의 게이샤를 그리고 있다.

이와 같이 영화 <게이샤의 추억>은 게이샤복식에 있어서 고증적으로 해석한 것과는 달리 가능한 현대적인 세련미를 반영하여 재해석하려고 한 의도가 엿보이며, 전통적인 게이샤의 인공적인 미에서 벗어나 감각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기생을 표현하려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영화 <게이샤의 추억>을 통해 지금까지 역사 속에 감춰져왔던 게이샤의 복식에 관한 연구 및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표현된 일본풍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게이샤(芸者)란 주로 연희석에서 노래나 춤을 추어 주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는 일본 기녀를 말하며, 에도시대 큰 사찰이나 항구 근처에서 성행했던 찻집이 시발점이 되면서 각 지방에 하나마치(花街)가 생겼는데, 이곳이 게이샤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되었다.

둘째, 게이샤의 복식에 있어서 견습게이샤인 마이코의 경우는 후리소데(振袖)의 히키즈리(引摺り) 기모노(着物)를 입는다. 마이코 초기는 와레시노부(割れ信夫)라는 헤어스타일을 하며, 2-3년 후에는 오후쿠(おふく) 스타일, 에리카에(襟替え) 1~4 주전에는 삿코(先笄) 스타일로 머리를 묶는다. 정식 게이샤가 되면 빨간 색의 깃 대신 흰색 깃으로 바뀌어서 단다. 게이샤의 가장 공식적인 正裝은 구로몬츠키(黒紋付き)의 기모노이며, 머리는 시마다마게(島田髷) 스타일로 묶는다.

셋째, 영화 <게이샤의 추억>의 등장인물별 색채의 상징성에서 사유리는 순수한 매력을 표현하기 위해 파스텔 톤의 부드러운 색을 많이 썼으며, 그

중 grayish blue와 grey color로 은은하고 침착한 분위기와 역경을 이겨내는 사유리의 강인한 성격을 표현했다. 이에 반해 하츠모모는 주로 red와 violet, black의 색채를 사용하였는데, 질투와 공격적인 성격, 표독하면서도 도발적인 미태를 묘사하였다. 마메하는 주로 khaki, 옅은 자줏빛 등 단조로운 색채를 사용하여 우아하고 고상한 게이샤를 연출하였다.

넷째, 등장인물별 색상과 색조조화의 특성과 내적 의지로서 유년기의 치요(사유리)는 어두운 색조의 기모노와 red계열의 오비로 반대색상 유사색조 배색으로 참담한 신분으로 전락한 그녀의 좌절하는 모습이 엿보이며, 마이코가 된 사유리는 동일색상 유사색조 배색,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으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마이코의 화려하고 우아한 모습을, 게이샤가 된 사유리는 grayish blue계열의 반대색상 동일색조 배색, 동일색상 동일색조 배색으로 내적으로 성숙하고도 강해진 게이샤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에 반해 하츠모모는 전체적으로 강한 대비를 이루는 반대색상 대조색조 또는 유사색상 대조색조, 반대색상 유사색조 배색이 주된 특성이다. 이러한 배색은 하츠모모의 화려한 외모와 거칠고 반항적인 팜프파탈(femme fatale) 이미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메하는 유사색상, 유사색조 배색과 유사색상 동일 색조 배색으로 단아한 귀부인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그 내면에는 계획을 빈틈없이 실천하는 단호한 의지와 냉철한 모습이 숨겨져 있다.

다섯째, 일본 전통 기예를 갖춘 게이샤에게서 우러나는 빛은 에도시대(江戸時代)의 미적 개념인 '이키(粹)'의 美로 대표된다. 이키는 천박한 화려함의 무절제를 피하는 미적 생활태도이며, 이것은 화류계에만 그치지 않고 시대를 초월하여 일본인들의 인생관으로서의 의미를 정착시켰다. 또한 게이샤의 기모노뿐만 아니라 전통 기모노의 技와 디자인에 있어서의 아름다움은 '다테(だて)'의 美에 속한다.

이상과 같이 게이샤의 삶을 그린 영화 <게이샤의 추억>은 전통적인 게이샤의 인공적인 미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세련미를 반영하여 감각적이면서도 매혹적인 기생을 표현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라스트 사무라이:The Last Samurai(2004.1.9

개봉)> 등의 영화와 함께 세계적으로 일본풍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겠다. 이것은 또 다른 일본의 이국적 매력으로서의 자포니즘(japonisme)의 유행을 예고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본 연구가 일본 게이샤문화와 복식의 특성 및 미의식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그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후속 연구에는 현대패션에서 나타난 일본풍을 디자이너별로 연구해보고, 나아가 조선시대 기생과 일본의 게이샤를 비교분석하여보는 것도 가치 있다고 사료된다.

## 참고문헌

- 三省堂 百科辭書 編輯部 (1937). 婦人家政百科辭典. 東京: 三省堂, p. 608.
- 에도시대(江戸時代)부터 계속 이어온 日本京舞 중 하나이며, 또 하나는 篠塚流(しのづかりゅう)가 있다.
- 日本舞踊의 流派이며, 5大流派 중 하나다.
- 홍윤기 (2000). 일본문화백과. 서울: 서문당, pp. 64~65.
- 三省堂 百科辭書 編輯部 (1937). 앞의 책, p. 608.
- 日本美術全集 제22권 (1978). 東京: 學習研究社
- 이와사키 미네코, 랜디 브라운저 (2003). 게이샤 : (A) LIFT. 서울: 미다스북스, p. 8.
- 게이샤를 양성하는 특수 학교
- 유재순 (2006. 3. 11). 게이샤 환상 일본선 깨진 지 오래. 주간조선
- 위의 글
- Liza Dalby저, 유용훈 역 (1999). *GEISHA*. 서울: 우석, p. 298.
- 자료검색일 2006. 7. 5.  
자료출처. <http://animato0.hp.infoseek.co.jp>
- John Gallagher (2003). *GEISHA*. New York: PRC Publishing Ltd, p. 219.
- 이른바 shoulder tuck을 말한다.
- Liza Dalby. 앞의 책, pp. 211-229.
- 매년 8월1일에 마이코와 게이샤가 도움을 받은 찻집 주인들에게 인사를 돌리는 행사
- 마이코가 처음으로 화류계에 데뷔하는 것
- Liza Dalby. 앞의 책, pp. 293-298.
- Till, Barry (2006). *The kimono of the geisha*. San Francisco: Pomegranate, p. 37.
- 자료검색일 2007. 2.10.  
자료출처. <http://www6.ocn.ne.jp>
- Liza Dalby. 앞의 책, pp. 226-233.
- BBC NEWS. *Photo journal: Geisha*.  
<http://news.bbc.co.uk>
- Jodi Cobb (1998). *Geisha: The Life, the Voices, the Art*. New York: Random House Inc, p. 53.

- 24) 江戸時代後期에 교토(京都)의 서민들 중 젊은 부인들이 자주 하는 헤어스타일. 現代에는 마이 코가 에리가에(衿替え)直前に 인사를 들릴 때 하는 헤어스타일.
- 25) 치아를 검게 칠하는 것은 헤이안시대(平安時代) 이후, 公家·武家에서 12-16세가 된 남자아이의 성인식인 겐부쿠(元服)의 습관으로 행해졌다.
- 26) 여자의 일본식 속발에 꽂는 장식품
- 27) 아서골든, 임정희 옮김 (2006). 게이샤의 추억. 서울: 현대문화센터, p. 189.
- 28) ポーラ文化研究所. 粧い文化史. 자료검색일 2007. 2.10. 자료출처. <http://www6.ocn.ne.jp>
- 29) 위의 글.
- 30) 위의 글.
- 31) 위의 글.
- 32) 위의 글.
- 33) 자료검색일 2007. 3. 20. 자료출처. <http://ja.wikipedia.org>
- 34) 자료검색일 2007. 2.10. 자료출처. <http://ja.wikipedia.org>
- 35) 위의 글
- 36) Jodi Cobb, *op. cit.*, p. 9.
- 37) 조규화 (1982). 복식미학. 서울: 수학사, pp. 358-360.
- 38) 京風, 上方風은 교토(京都), 오사카(大阪)지방의 風
- 39) 九鬼周造 (2001). 이키의構造. 東京: 岩波文庫, pp. 24-29.
- 40) 멋(풍류)이 없음, 촌스러움
- 41) 조규화 (1982). 앞의 책, p. 360.
- 42) 九鬼周造 (2001). 앞의 책, pp. 23-24.
- 43) 위의 책. pp. 61-75.
- 44) 조규화·이희승 (2004). 패션미학. 서울: 수학사, pp. 277-278.
- 45) 위의 책. pp. 100-04.
- 46) 뉴욕 공립도서관 소장
- 47) 조규화 (2006). ファッションに見る日本風と韓流. ファッションビジネス學會論文誌, 제11권, p. 57.
- 48) 조규화. 앞의 책, pp. 357-358.
- 49) 野間清六 (1965). 日本の美術(16). 東京: 平凡社, pp. 34-41.
- 50) 자료검색일 2007. 2.10. 자료출처. <http://www6.ocn.ne.jp>
- 51) Japanese Design In Art (1983). 京都: 京都書院.
- 52) 츠즈레오리(つづれおり), 염색을 한 명주실로 여러 가지 무늬를 짠 실크
- 53) 주정환 (2006. 2. 2). 할리우드, 일본 신비주의에 푸욱 빠졌다. 중앙일보.
- 54) <게이샤의 추억> DVD(2006). DISC2.
- 55) 위의 자료.